

## 『창세기 21회: 창세기 21:1-21』

### 1. 이삭 출생(21:1-7)

1절은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sup>1)</sup>

“그리고 여호와가-방문했다-그가 말한 대로”

“그리고 행했다-여호와가-사라를 위해-그가 약속한 대로”

이 구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방문하셔서 사라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방문했다(개역개정: 들보셨다)는 단어는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관심<sup>2)</sup>, 운명을 형성시키거나 변경시키는 누군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의미합니다.<sup>3)</sup>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삶에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자비(창 50:24-25; 시 8:4)일 수도 있고, 징벌(출 20:5)일 수도 있습니다.<sup>4)</sup>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하시고 도움을 주시며, 그분을 떠나 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문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십니다.

2절에서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출산합니다. 2절에서 말씀하신 시기는 람모예드(רַמּוֹעַד)인데, 이 단어는 “내가 내년 이 시기(רַמּוֹעַד)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창 17:21),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רַמּוֹעַד)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 18:14)에서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삭을 낳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때’를 의미하는데, 2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sup>5)</sup>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늘 신중하게, 경거망동하지 맙시다.

3-4절, 아브라함은 이삭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삭은 웃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

1) Kenneth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27-50:26*(Nashville: B&H Publishing Group, 2005), 권대영 역, 『창세기 2』(서울: 부흥과개혁사, 2019), 338.

2) Gordon J. Wenham, *Genesis 16-50*, Word Biblical Commentary Volume 1(Texas: Word Books, 1987), 윤상문, 황수철 역, 『창세기 16-50』(서울: 솔로몬, 2006), 188.

3) Allen P. Ross, *Creation and Blessing*(Michigan: Baker Book House, 1988), 김창동 역, 『창조와 축복』(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561.

4)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38.

5)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38.

삭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중입니다.<sup>6)</sup>

3절은 산모를 강조해서 언급합니다. 직역하면 3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그에게 태어난 자, 사라가 그에게 낳은 자를 이삭이라고 불렀다.”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사라가 강조됩니다.<sup>7)</sup> 성경은 사라는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사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만으로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을 받았으며,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사라도 중심인물이었습니다.<sup>8)</sup>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도 성장시키셨고,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도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을 함께 준비시키신 후에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한 가정과 교회도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성취되는 약속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역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과 평신도들이 성장해야만 교회에 이루어지는 약속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고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다고 믿었다면, 이삭을 얻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를 지속적으로 양육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에서 상대적으로 돋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계시며, 이 과정에서 이들이 준비될 때, 공동체에 웃을 일을 허락하십니다.

5-7절, 아브라함은 이전에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성경은 그 질문을 그대로 받아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5절)라고 기록합니다.<sup>9)</sup>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셨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부모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일깨우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본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비웃었으나(체호크), 이제 사라는 하

6)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5), 임요한 역, 『NICOT 창세기II』(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04.

7)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39.

8) 김미화, 박형대, 『하갈과 사라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대한 소고』, 27

9)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05.

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웃습니다(이츠하크).

하나님의 약속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삶에 역동한다면, 그 삶에는 늘 자유와 기쁨이 함께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쁨을 자극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영화를 보든, 사람을 만나든,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든, 쇼핑을 하든, 여행을 가든... 그것들이 꼭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삶의 유희와 휴식이 하나님과 별개로 이루어진다면, 자극을 통해서 주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갈망하게 되고, 더 큰 자극을 찾다보면 사람이 부자유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자극과 별개로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간절한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확신이 가득해서 극도의 기쁨을 누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기쁨이 있어서 평안을 경험합니다. 사라는 지금 전자를 경험 중인데, 우리에게도 전자의 기쁨과 후자의 기쁨 모두가 있길 바랍니다.

## 2.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21:8-21)

8-10절, 고대 전통 안에서 어머니들은 아이를 세 살까지 모유를 먹였습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세 살까지 살아남은 아이가 젖을 떼면서 성대한 잔치를 열곤 했습니다.<sup>10)</sup> 9절에서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놀았습니다(조롱했다고도 번역가능). 이전에는 사람들이 사라를 조롱했지만, 이제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합니다.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과 놀았다면, 이스마엘은 새로운 상속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애썼을지 모릅니다.<sup>11)</sup> 이를 감지한 사라는 앞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리를 위협하리라 판단하고 분노합니다.<sup>12)</sup>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쫓으라’라고 번역한 동사 가라쉬는 ‘제거하다’는 의미로, 아담과 가인을 추방할 때, 바로가 모세가 내쫓을 때, 가나안 주민을 몰아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sup>13)</sup> 사라는 이들에게 상당한 적의를 드러냅니다.

사라는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라고 이들을 쫓아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 표현은 창세기 15장 4절(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을 암시합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중입니다.<sup>14)</sup>

10)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191.

11) Allen P. Ross, 『창조와 축복』, 564.

12)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192.

13)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41.

14)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41.

사라의 행동은 정당합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라가 과도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라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다는 점입니다.

11-13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인해 근심합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을 그 여종의 아들이라고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sup>15)</sup>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키기 위해 이스마엘에게 큰 상처를 주어야만 합니다.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아브라함의 혈통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서 인간의 분노는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합니다.<sup>16)</sup>

반드시 좋은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누군가의 분노, 내가 누군가를 향해 뿜어내는 분노까지도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해가십니다. 그러니 나를 향한 사람들의 감정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의 생존과 미래를 염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염려를 아시고 이 부분을 만져주신 것입니다.<sup>17)</sup>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시키십니다.<sup>18)</sup>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고민과 염려를 아시고, 시의적절하게 우리에게 적합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깊은 근심과 염려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삶의 좌표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14-16절,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빵과 물을 제공합니다. 물 가죽 한 부대는 약 15리터를 담을 수 있었는데, 이는 얼마 되지 않는 양입니다.<sup>19)</sup> 아브라함은 양식을 하갈의 어

15)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193.

16)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13.

17)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194.

18)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43.

19)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194.

깨에 두고 아들을 하갈의 보호에 맡깁니다. 사라는 하갈을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내지 않고, 보냅니다.<sup>20)</sup>

하갈은 브엘세바 지역을 방황합니다. 하갈은 피난처로 삼을 집이 없었습니다. 물이 곧 떨어졌고, 하갈은 해를 가리기 위해 이스마엘을 관목 덤불 아래로 보냈습니다. 하갈은 아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하갈에게는 아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거나, 고통에서 구해줄 힘이 없습니다. 지켜볼 수는 있지만, 도울 수는 없습니다.<sup>21)</sup> 하갈은 아들이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서 눈이 멀기를(“볼 수 없기를”; 개역개정 “차마 보지 못하겠다”) 바랍니다.<sup>22)</sup> 하갈은 울음을 터트립니다. 처음으로 하갈이 기도합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이 더위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절망하는 모습은 실제로 모든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질입니다. 이스마엘을 도와줄 하갈의 물이 떨어진 것처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도와주는 것도 어느 순간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인생은 누가 누군가를 대신해 살아줄 수 없습니다. 개인은 각자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삶을 책임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죄로 물들여서 망쳐가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죽어가는 사람을 볼뿐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보지 못하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17-19절,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년과 하갈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후, 아이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이스마엘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갈은 전혀 몰랐지만, 흥미롭게도 바로 근처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 그제야 하갈은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실제적인지를 봅니다. 아들을 살릴 우물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니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봅니다.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15.

21) Victor P. Hamilton, 『NICOT 창세기II』, 116.

22) Kenneth Mathews, 『창세기 2』, 346.

20-21절, 성경은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과 하갈이 애굽 여자를 구해다 주었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16:12의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겠고...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sup>23)</sup> 하갈이 아내를 구해다주었다는 것은 그녀가 아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부모의 궁극적인 의무인 결혼의 과제를 담당합니다.<sup>24)</sup>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갈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

23)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198.

24) Gordon J. Wenham, 『창세기 16-50』, 198.